

# 비엔날레 시즌 광주 전시회 '붓물'

## 국내외 평론가들에 이름 알리기 지역 작가들 앞다퉈 작품 내걸어

“광주비엔날레 특수를 누리자.”  
2008 광주비엔날레(5일~11월9일) 개막에 맞춰 '비엔날레 특수'를 겨냥한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66일 동안 국내외의 관람객과 유명 미술 평론가들이 대거 광주로 몰려들어 그 어느 때 보다 전시회가 쉽게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앙 화단과 외국 무대에 제대로 이름을 알릴 수 없었던 지역작가들에게는 광주비엔날레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역 화랑가에서 앞다퉈 전시회를 갖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은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기념해 오는 10월12일까지 지역작가들을 소개하는 '모놀로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최재영, 임남진, 전현숙, 박수만, 정운학, 주라영, 박상화, 박윤숙씨 등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현대인의 고독을 담은 회화와 조소 작품을 선보인다.

기형적인 큰 머리를 가진 아이 연작을 선보이고 있는 최재영씨는 기타와 색소폰을 연주하는 아이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피로먼스' 연작을 전시한다. 또 정운학씨는 현대인의 지치고 외로운 일상을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겨진 옷 '쉘(rest)' 등을 출품했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은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지역 작가들을 국내외의 미술계에 소개하기 위해 내년 2월1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콜라주(Collage)'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이상필, 심영철, 손봉채, 이이남, 오상조, 조덕현, 허희태 등 작가 7명의 설치, 영상, 사진, 서예 등 시각예술품 70점을 선보인다.

이상필(동신대 교수)씨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의 풍경을 표현한 천연 염색 작품 '바람 색 소리'를 전시하고, 이이남씨는 26인치 모니터 안에 움직이는 그림을 넣은 디지털 작품인 '신-팔대산인'을 내놨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후원을 받아 열리는 전시회도 눈길을 끈다. 나인갤러리는 오는 10월25일까지 한중일 작가 38명의 작품을 모은 '광주비엔날레 후원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수중, 고근호, 박수만, 최재영, 이이남, 윤남용, 이정록 씨 등 광주작가들과 정인완, 설종보, 김민수, 차명희,

주도양, 박은하씨 등의 국내 작가들이 참여한다. 또 중국의 인쿤(yin kun), 조우치(zhou qi) 일본의 고바야시 유지(Kobayashi Yuji), 후리야 히로코(Furuya Hiroko) 등의 작가들도 작품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 위치한 무등현대미술관도 비엔날레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여성 작가 10여명의 전시를 기획했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11월2일까지 김주연, 박소빈, 허정수, 김진화, 최향, 배상윤, 조은경, 전현숙, 옥현숙, 오혜경씨 등이 참여하는 '2008 광주여성미술제'를 갖는다. 이들 작가들은 '천개의 태양'을 주제로 남도 여성 미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수중 작 '달과 해오리비'



7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모놀로그'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정운학씨의 작품 '쉘(rest)'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립합창단 '초가을 특별한 나들이'

### 8일 정기연주회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 정기연주회가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초가을의 특별한 나들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쥘레 평화 주 소서' 등 성가를 비롯, 가곡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사한다.

남성합창단은 '추억의 노래 메들리'에서 '사의 찬미', '바다의 고향성' 등을 들려주며 뮤지컬 '시카고'의 메인 테마인 'All that jazz', 팝 그룹 퀸의 '보헤미



특별한 무대가 마련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국립합창단장을 거쳐 안양시립,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오세중(사진)씨가 객원 지휘를 맡는다. 문의 062-510-93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 랑소디, 합창으로 듣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재즈풍으로 편곡한 헨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 중 '할렐루야' 등

## 가을 밤 수놓은 두가지 빛깔 가야금 연주회

### 빛고을가야금연주단 연주회

### 성애순 남도 소리 초청 공연

빛고을가야금연주단(단장 성심은)은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무대는 다양한 장르의 현대음악을 가야금으로 풀어낸 퓨전 연주회로 꾸며졌다. 터키민요 '우스카타라', 멕시코의 '라쿠카라차' 등 세계민요와 '키사스', '카추샤', '침밀밀', '리밤바' 등 영화음악이 주 레퍼토리다. 또 드라마 '눈의 꽃' 주제가와 이투마의 피아노곡 '키스 더 레인'도 만날 수 있다.



성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인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려준다. 조바꿈이 많고 선율이 화려한 성금연류는 연주 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가야금 산조중 가장 긴 산조로 꼽힌다. 장교 반주는 김동현(광주교육대 교수)씨.

성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인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려준다. 조바꿈이 많고 선율이 화려한 성금연류는 연주 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가야금 산조중 가장 긴 산조로 꼽힌다. 장교 반주는 김동현(광주교육대 교수)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오늘의 비엔날레 작품

2008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5일 개막돼 국내외의 관람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특정 주제 없이 '연례보고' 형식으로 지난 한해 세계 각지에서 열린 화제의 전시회를 한 자리에 모은 이번 비엔날레에는 36개국 127명의 작가가 1천 4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역동적인 현대 미술의 향연이 될 이번 비엔날레의 출품작 가운데 화제의 작품들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 요하힘 손펠트 '포 뮤지션스'

### 네마리 동물들이 들려주는 '오해와 착각'

광주비엔날레 제1전시관에 들어서는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는 건 사자, 아프리카 소, 공작, 독수리 등 네 마리의 동물 박제이다. 요하힘 손펠트(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 뮤지션스(for Musicians)'는 유일하게 사람이 실시간 연주를 하는 작품이다.

이들 동물을 박제해 공작~독수리~사자~소 순으로 차례대로 위로 쌓은 뒤 전남대 음악대학 재학생 5명이 흥겨운 음악(화·목·토요일 오전 11시~12

시까지)을 들려준다. 자기 보다 몸집이 큰 동물을 등 위에 올리고 있어야 하는 동물들의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모습을 통해 의사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착각을 꼬집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하힘 손펠트는 아프리카의 정서가 짙게 깔린 머리가 세 개 달린 독수리 회화 작품 등으로 세계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베니스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제2기 광주정신 계승시민대학 수강생과 2008 가을테마여행 경주문화탐방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민대학 강좌는 '16세기 광주 사립의 절 의정신과 의병활동(25일 오후 2시)' '일제시대 광주출신의 독립운동'(10월 2일 ~)을 주

제로 북구 향토문화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또 '광주정신을 찾아서 떠나는 현장답사'(10월 9일)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

전문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경주 문화 탐방은 오는 27~28일 진행되며, 불국사·석굴암·분황사 등 경주 곳곳에 산재돼 있는 문화 유산을 살펴 본다.

1인당 참가비는 10만원이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재단 사무국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34-2727.

/오미은기자 emlee@kwangju.co.kr

## '대동문화' 9·10월호 출간

광주지역 문화예술 잡지인 격월간 '대동문화' 2008년 9·10월호(48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 특집으로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장, 류재홍 공간력 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주시 공공 조형물 설치에 관한 평가와 대안을 모색한 좌담회

를 실었다.

'문화도시 광주, 함께 만들고 같이 가꾸자'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문화 도시 광주의 조형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예술의 거리, 광주전편, 금남로 등에 설치된 공공 조형물에 대한 평가 등 광주의 공공미술의 현주소를 심도있게 짚어냈다.

/오미은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일중한의원' (Iljung Han's Clinic) featuring a group of doctors and text about their services. Contact: 062) 676-1075.

Advertisement for 'i엘리시아' (iElysia) featuring a woman's portrait, website www.elysia.com, and contact number 062) 671-1199.